

2/8(화) 민수기 5-7장 진영의 질서와 거룩함

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 받은 규례들이 기록되었습니다.
레위기는 규례를 실행하는 실제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었습니다.
민수기에는 광야를 행군하며 필요한 지침들이 담겨 있습니다.
하나님은 병력만 60만인 큰 공동체의 이동을 진두지휘 하십니다.

이동과 진 배치에는 순서와 방법들이 있습니다(2,10장).
어디로 가든지 성막은 가장 중앙에 세워져야 합니다(2:2,10:17,21)
성막 주위에 완충지대로서 제사장과 레위지파가 진을 칩니다.
그 둘레로 3개지파가 한 그룹을 이뤄 동, 서, 남, 북에 진을 칩니다.
하나님은 각각의 임무와 규칙, 절기에 관해 말씀하십니다(3-4,8장, 5-6,9:1-14).
열두지파는 필요한 물품과 예물을 드립니다(7장).

모든 백성은 동등하며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.
임무 수행과 운영 방침에는 엄연한 질서가 존재합니다.
잡은 이동에도 불구하고 진영은 늘 순수하고 거룩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.
공동체 및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협하는 모든 죄는 끊어져야 합니다(5장).

지도자들은 매사에 더욱 철저해야 합니다.
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나답과 아비후를 기억해야 합니다(3:4).
선두인 유다도 경거망동하면 르우벤의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.
하나님은 사람의 능력과 탁월함, 병력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닙니다.
‘작은 자’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뜻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(14:30-31).

질서와 거룩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<복>입니다.
“여호와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
여호와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
여호와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
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(6:24-26).”

엄격함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습니까?

- ❶ 질서와 거룩함, 순수성을 회복해야 할 삶의 영역이 있습니까?
- ❷ 능력과 탁월함, 특권의식으로 교만한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민수기 5-7장